



中小企業의 育成과 部品開發

金 善 弘

起亞產業株式會社 社長

지난해 우리 經濟는 貿易收支 黑字 42억불을 달성함으로써 外債縮小와 自力成長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量的, 質的 成長은 소위 3低效果라고 일컬어지는 낮은 油價, 달러, 金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지만, 같은 여건속에서 한국과 대만등 몇개 국만이 好況을 누리는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경제가 쌓아올린 内部的 潛有能力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하여튼 이제 우리는 先進經濟의 성숙된 면모를 보여야할 轉換期를 맞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貿易收支가 黑字로 轉換되는 가운데서도 機械類, 部品 및 素材의 國產開發 不振으로 對日 貿易逆調가 擴大되었고, 이를 對美黑字로 보전하고있는 현행 무역구조로는 貿易摩擦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지속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일역조는 우리산업의 對日 依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경기 호전이나 엔화강세 시에는 적자규모가 더욱 늘어나는 構造的인 問題點을 안고 있다. 따라서 對日輸入依存도를 縮小하기 위한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쟁력강화로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國產化 努力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산업구조의 재편 추이와 부존자원의 부족, 국내시장의 협소, 고용확대의 필요성등 우리산업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볼때 우리는 自動車, 機械, 電子등 資源節約的이며 技術人力集約的인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것이다.

사실 筆者가 몸담고 있는 自動車産業도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輸出商品으로 등장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제품이 자동차의 최대시장인 미국에 수출되는 輸出産業化의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술개발 기간이 日淺하고 核心技術이 不足한 우리경제의 내일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技術競爭時代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술기반이 약하고 技術的 自立이 不足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의 技術移轉 回避現狀에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수출상품을 개발 하느냐에 成敗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외부적인 우리 産業構造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補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中小企業의 底邊을 擴大하여 산업의 下部基盤을 튼튼히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이 향후 우리산업의 성장에 中樞의 役割을 담당해 나갈수 있도록 그 저변을 확충해 나가고 對外開放과 技術革新에 能動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競爭體質을 培養하여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육성되어야하며 이것은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기술개발을 위한 技術人力養成이 시급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술은 폭은 넓고 얇은 기술에 치중되어 왔으나 이를 깊고 專門化

된 技術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專門技術者에 대한 우대와 人事上의 惠澤을 주어야 한다.

특히 技術開發은 資本投入의 증가와 더불어 이를 담당할 人力養成에 주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専門기술자의 海外研修 및 외국기술자의 빈번한 접촉과 交流등으로 國際性있는 技術者로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企業의 體質은 自由競爭原理에 입각한 경쟁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경쟁이 없으면 기술도 발전하지 않으므로 國內外自由競爭을 誘發시켜야 한다. 競爭을 통한 自體技術 開發能力的 強化는 상당부분의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인 對日貿易逆調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이다. 물론 부품소재중

핵심기술의 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조금만 노력이 기울이면 능히 우리 손으로 自立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급히 國產化를 하여 자력성장의 기반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요컨대 우리경제를 輸出産業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貿易收支 黑字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劃期的인 育成發展으로 産業構造를 補強하고 기계류, 부품 및 소재생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共通隘路 技術開發과 시장정보의 확대제공에 주력하는 한편 技術集約的인 中小企業 創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政界, 學界, 研究團體, 企業이 모두 共通意識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87년도 공업발전기금(기계) 운용관리 요령

1. 자금규모

16,500 백만원(공동취약기술개발비 3,500 백만원 포함)

2. 용자대상

가. 기계류, 부품소재 개발

기계류 및 동부품의 시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나. 공동취약기술개발사업

금형, 공구, 도금, 열처리, 주단조, 용접 기술을 개선하거나 개발하려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3. 용자조건

가. 용자금리 : 년 6%

나. 용자기간 : 5년(2년거쳐 포함). 단,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동일인 한도 : 2억원 이내(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통한 공동연구인 경우 3억원 이내)

라.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90%이내

4. 용자신청

가. 기간 : 1987. 3. 2~1987. 11. 30

나. 접수처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진흥과

다. 신청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3) 기타 참고서류

라. 선정 : 분기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진흥부 진흥과(782-5811/6)로 문의바람.